

2. 제언

1) 농촌주민들의 전통의료는 무속적인 방법과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하며 전통의료에 사용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2) 보건수요자에 관한 보건의식과 의료요구 형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농촌주민들의 전문의료기관 이용율을 합리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4) 본연구는 계속적인 추적연구와 농촌분류의 3대 유형 중 본 논문에서 취급하지 않은 다른 2유형의 농촌에 대한 조사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참고가된 여러 연구조사를 앞서 이루어놓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부 농촌지역 가족계획 풍문과 실천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Vol. 8, No. 2, pp. 63~74, 1978.

추수경

A. 결론

농촌지역에 유포되어 있는 가족계획 풍문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천과의 관계검토를 목적으로 하여 경기도 강화군 4개면의 전지역수가 60이었으나 분석이 가능한 55개 지역만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이 지역의 가족계획 대상자의 가족계획 실태를 묶어 소지역 가족계획 실태를 산출하였고, 풍문은 소지역 가족계획 자원 지도자(새마을지도자, 건강요원)가 들은 빈도를 소지역 풍문 빈도로 간주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가족계획에 관한 풍문은 피임방법별로 조사한 결과, 정관술에 관한 풍문보다 자궁내장치, 먹는피임약에 관한 풍문을 많이 듣고 있었고, 자궁내장치, 먹는피임약에 대해 듣고 있는 풍문내용이 개별 가족계획 대상자를 분석단위로한 최 박의 풍문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풍문에 관한 연구는 개별 가족계획 대상자가 들은 풍문과 새마을 지도자 건강요원이 들은 풍문을 소지역을 대표하는 풍문의 자료로 사용하여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미루어, 본 연구가 채택한 소지역 분석방법을 시간, 경제, 인력, 분석과정의 간편성을 고려하여 많이 기용할 것을 권장한다.

2. 새마을 지도자 건강요원의 인구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풍문과의 관계에서는 인구학적 변수에서 자녀구성과는 무관하며, 성별 연령과는 상관관계를 보이나, 피임방법

별로 보았을 때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회학적 변수로 교육수준은 정관술에 한하여 교육이 높은 군에서 풍문의 들은 빈도가 많았으며, 경제학적 변수로 경제수준은 풍문과 무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새마을지도자 건강요원의 인구학적 변수는 가족계획 실천률과 선택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평균차에 대한 검증이나 상관계수결과 이를 입증하고 있다.

3. 가족계획 풍문을 들은수에 따른 가족계획 실천률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유의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F=1.88$, $df_{01}=54.2$, $p>0.01$, 상관계수 0.04 , $p>0.01$) 가족계획 풍문이 가족계획 사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가정이나, 기존연구결과 풍문의 노출이 가족계획 실천과 정비례하는 것으로 보아왔으나, 본 연구결과는 이와 달리 무관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평균의 차의 검증,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떠나 분포의 유형을 검토한 결과 비례관계보다는 분포유형을 10개 도표중 8개 도표에 발견할 수 있었음을 미루어 풍문을 전혀 듣지 못한 경우와 자주 들은 경우, 가족계획 실천률이 낮은 현상을 보아 풍문은 유해 또는 무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B. 제언

1. 가족계획 풍문을 들은 빈도와 가족계획 실천률관계간에 밝혀진 여러 유형을 이루는 원인이나, 영향에 미치는 주요변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2. 본 연구는 가족계획 풍문률에 따라 실천률의 차이를 검토하였으나, 앞으로 가족계획 실천률에 따라 가족계획 풍문을 듣는 빈도의 차이를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농촌부인의 산전산후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 일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

진주간전 논문집, Vol. 3, No. 1, pp. 5~10, 1979.

김 정 녀

임신경험이 있는 231명을 대상으로 농촌부인의 산전산후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연령분포는 36~40세가 가장 많고, 평균 연령은 38.8세, 교육수준은 국민학교가 으뜸이며, 생활수준은 중류, 임신횟수는 5-6회가 수위였고, 현존자녀수는 3-4명, 5-6명이 각각 동시에 가장 높았다.